



인쇄·기획전문기업 ‘한동문화사’ “정직과 신용이 한동문화사의 경쟁력”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본지에서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충무로에 위치한 한동문화사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01년 설립된 한동문화사(대표 황문식)는 사보 및 사사제작·인쇄·제책 전문기업으로 료비 양면오프셋인쇄기, 무선철 제책기, 접지기, 정합기, 재단기, 자동중철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황문식 대표는 1982년 동아출판사에 입사해 생산관리를 담당했다. 이후 1989년 양지사에서 근무하다 2001년 한동문화사를 설립했다. 황문식 대표는 “1982년 동아출판사에 입사해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후 20여년 동안 인쇄실무를 담당하면서 보다 좋은 인쇄물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한동문화사를 설립한 이후 보다 효율적으로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연구소 인쇄물로 착실히 성장

한동문화사는 아동 출판물 제작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습교

재 및 책자를 제작해 자리를 잡았다. 프로젝트연구소의 인쇄물은 2003년부터 진행했는데,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급했다.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은 2000년대 초반 학습인쇄물을 전국 1200여개 어린이집에 납품했다. 연간 6~7만 세트에 이르는 물량이였다. 황문식 대표는 “인쇄업에 30여년 동안 종사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쇄물은 어린이 관련 인쇄물이다. 내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이 보는 인쇄물만큼은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 노력한 만큼 물량도 많아 연간 7만세트까지 인쇄해 납품했다. 프로젝트연구소의 작업물은 지금의 한동문화사를 있게 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2008년부터 유치원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쇄물 대신 컴퓨터에서 그 날의 학습물을 출력하면서 유치원 학습인쇄물시장도 사라졌다.



1. 프로젝트연구소의 어린이학습인쇄물 2. 한동문화사에서 작업한 다양한 정기간행물 3.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50년사 등 사사인쇄물
4. KBS미디어와 사랑의 꿈나무 일기장본부가 전국 초교 어린이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사랑의 꿈나무 일기장'

정직과 신용으로 30년 신뢰 축적

한동문화사가 어린이 학습인쇄물로 자리를 잡았다면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인쇄물과 각종 출판서적, 카탈로그 제작을 통해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

한동문화사에서 작업한 정기간행물에는 서울시철도공사의 매거진 행복미소, 대한적십자사의 RCY지, 한국농어촌공사의 흙사랑물사랑, 농업진흥청의 농업기술, 당진군청의 당진군 우강면지, 용산구 소식지를 비롯해 덕수초등학교 100년사, 금속조합50년사,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30년사, 공군 활동상 홍보 사진집, 해군 활동상 홍보 사진집, 서울시우수공공디자인 종합책자, 해외문화유산 우수활용사례집,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안내문 등이 있다. 최근에는 공군 사보 제작의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등 경기불황에도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문식 대표는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내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고객도 나를 믿어준다. 인쇄업에 몸을 담은 30여년 동안 신뢰를 쌓아오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회사 설립 후 매년 4~5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많은 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BS와 사랑의 꿈나무 일기장 보내기 사업 참여

'사랑의 꿈나무 일기장 보내기'는 KBS미디어와 사랑의 꿈나무 일기장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KBS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한동문화사가 인쇄를 담당하고 있다.

사랑의 꿈나무 일기장 보내기 운동본부는 아이들의 풍부한 감성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일기장을 전국 5895개 초등학교 295만 명의 학생에게 무료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기장은 분기별 300만권씩 1년에 4번으로 나눠 총 1200만 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하나은행 등의 지원으로 1백만 부가 인쇄돼 배포됐다.

황문식 대표는 "요즘 아이들은 일기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일기는 하루하루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쓰면서 하루를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일기를 씬으로써 생각하는 능력과 함께 글쓰기 실력도 쑥쑥 늘어난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 뜻있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자발적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문식 대표는 올해 말 출판 예정인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그림으로 읽는 안중근의사' 출판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출판준비위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류연승 민족광장 공동대표, 이택휘 국학원 원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남다른 고향사랑 각종 행사 지원

황문식 대표의 고향사랑은 남다르다. 충북 괴산이 고향인 황문식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올라왔지만 고향생각은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 부모님이 아직도 괴산에 계시기에 고향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지난해에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어르신을 위해 경로잔치를 열기도 했으며, 인쇄관련 행사 및 고향인 충북 괴산에서 열리는 살구꽃축제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

등문화사 연혁

2001년 5월	한동문화사 설립
2009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표창
2010년 9월	서울특별시시장상 표창
2012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표창